

저자 (Authors)	채용복
출처 (Source)	<a href="#">어문학</a> , 1988.7, 219-235(17 pages) <a href="#">Eomunhak</a> , 1988.7, 219-235(1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어문학회</a> hankukeomunhakho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05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054</a>
APA Style	채용복 (1988). 조신구조의 분석적 고찰. 어문학, 219-23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2 11:2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高麗 金石文에 나타난 吏讀表記 研究

—체언류를 중심으로—

鄭 詰 柱

〈內 容〉

- |         |         |
|---------|---------|
| I. 序論   | 3. 事    |
| II. 體言類 | 4. 次知   |
| 1. 匠    | 5. 毛    |
| 2. 節    | III. 結論 |

## I. 序 論

古代國語를 연구하는 方法으로 흔히들 ① 문헌자료 연구, ② 비교언어학적 연구, ③ 내적재구(reconstruction), ④ 방언연구, ⑤ 金石文 연구, ⑥ 일반 언어이론을 통한 연구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方法들은 서로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며 또한 이들을 통해서 古代國語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다.

以上の 方法들을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資料는 訓民正音が 만들어지기 前에 사용된 借用表記들이다.

借用表記들은 三國時代로부터 朝鮮朝 末期까지 이어지는 데 이들은 사용 범위에 따라서 吏讀, 鄉札, 口訣로 나눌 수 있다.<sup>(1)</sup>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金石文은 塔, 碑, 飯子, 鏡 등에 기록된 吏讀表記字들이며 이러한 表記字 속에는 후대의 吏讀資料에서 찾을 수 없는 古代國語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sup>(2)</sup>

(1) 吏讀의 散文表記는 三國時代로부터 近代까지 사용되었으며 그 資料들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각시대의 변천된 言語의 모습을 짚을 수 있다.

(2) 金石文의 “金石”에 관한 설명은 朱劍心(1980)에서 찾아볼 수 있다.

‘金’者何? 以鐘鼎彝器爲大宗旁及兵器 度量衡器 符璽, 錢幣, 鏡鑑等物凡古銅器之有銘識或無銘識者皆屬之

‘石’者何? 以碑碣墓誌爲大宗旁及摩崖造象經幢柱礎石闕等物凡古石刻之有文字圖象者 皆屬之

이를 傳奇小說로 인정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아직 치밀한 구조분석을 통한 소설과 설화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그 갈래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論究가 없어 「調信」의 갈래 설정은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갈래 설정의 難點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幻夢構造로 이루어진 중국 傳奇小說 주로 枕中記·南柯記·南柯太守傳 등과 그리고 夢遊錄系 小說·九雲夢·金鰲新話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왔으나 중국 傳奇小說의 개념은 이들 문학사의 특성과 수준에서 命名된 것이므로 우리의 傳奇小說과는 그 범주가 같을 수 없으므로 이들 작품과의 비교는 상호 영향관계나 동일 모티프의 受容樣相 등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갈래 설정에는 별 의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幻夢構造로 이루어진 우리 소설과의 비교는 그 선후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갈래 설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상적인 유사점 찾기에 집중하다 보면 작품이 가지는 독자적인 의미를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

이런 가시적이고 피상적인 태도는 작품을 불교의 空思想 내지 觀音思想을 표현한 佛敎緣起說話로 획일화시키는 독단에 빠지게 한다. 물론 삼국유사가 僧一然에 의해 불교사상을 고취, 확산시킬 목적으로 纂述된 것이지만 그 중에서는 원래 불교와는 무관한 민간의 이야기를 一然이 의도적으로 불교적 색채로 潤色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선 선입견을 배제시키고 객관적 視角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調信」의 갈래 설정도 작품구조와 그 의미에 따라 판별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실체를 추적하여 反復構造로서 調信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갈래의 文學史的 位相을 설정하고자 한다.

## II. 意味機能段落을 통해 본 反復構造

문학작품은 그 構成要素가 긴밀하게 조직·통합·배열된 하나의 有機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치밀한 내부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완성된 형상을 構造라 한다.<sup>(7)</sup> 작품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들간의 연관성을 살피는 일이 요망된다. 構造分析은 문학을 고립, 분산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상호 결합된

(6) 林熒澤, 위의 글, p. 14.

(7) 李商燮, 文學의 理解(瑞文文庫 45, 瑞文堂 1985), pp. 46~47.

전체로서 다루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위의 방법은 소리, 낱말, 修辭의 文體 등의 形式的 부분과 素材, 主題, 著者の 態度 등의 非形的 부분<sup>(8)</sup>이 상호연락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의미의 덩어리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부분은 그 자체내에서 서로 일치점을 향해 연결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먼저 「調信」의 구조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사건전개, 시간의 경과, 주인공의 심리묘사, 상황설정 등에 따라 작품을 단락짓기로 한다. 이러한 意味機能段落은 梗概의 일목요연한 파악은 물론 작품의 구조 추출에 커다란 시사를 던져줄 것이다. 단락의 내용이 주인공의 심리묘사 내지 애정고백이라든지 긴 대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사건전개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의미기능단락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리고 치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부분은 단락 밑에 별도로 意味機能素를 설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아울러 각 단락 아래 작품의 원문을 게재하여 全文의 의미기능단락과 대조하도록 한다.

① 승 조신이 세규사 장사의 지장이 되다. (昔新經爲京師時 有世濠寺之莊舍 在溟州捺李郡 本寺遺僧調信爲知莊)

② 테수 김흔의 딸에게 깊이 매혹되다. (信到莊上 悅太守金昕公之女 惑之深)

③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서 그녀와의 결합을 기원하다. (屢就洛山大悲前 潛祈得幸)

④ 수년 뒤 그녀가 다른 데르 시집을 가다. (方數年間 其女已有配矣)

⑤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자기의 비원을 들어주지 않음을 원망하며 슬피 울다. (又往堂前 怨大悲之不遂已 哀泣至日暮)

⑥ 울다가 지쳐서 신잠이 들다. (情思倦懣 俄成假寢)

⑦ 꿈에 김씨랑이 반가운 얼굴로 나타난다. (忽夢金氏娘容豫入門)

⑧ 상인의 모습을 보고 깊이 사모했다며 반려가 되기를 원하다.

⑨ 환히 웃으며 上人을 보고 사모하여 잊은 적이 없음을 고백하다. (粲然啓齒 而謂曰 兒早識上人於半面 心乎愛矣 未嘗暫忘)

⑩ 부모님의 명령에 못이겨 다른 데르 시집을 갔지만 지금 그대의 반려가 되고 싶어 왔음을 털어 놓다. (迫於父母之命 強從人矣 今願爲同穴友 故來爾)

⑪ 조신은 기뻐하며 함께 고향으로 가다. (信乃顛喜 同歸鄉里)

⑫ 40여년 뒤 집안에 자식만 다섯 있을 뿐 남은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計活四十餘年 有兒息五 家徒四壁 藜藿不給)

⑬ 10여년간 조야를 유랑하며 결식하다. (遂乃落魄 扶擗 餬其口於四方 如是十年)

(8) 李南燮, 文學批評用語事典(民音社, 1976), p. 29.

周流草野)

⑫ 가세가 극빈하여 누더기 옷은 몸을 가리질 못했다. (懸鷄百結 亦不掩體)

⑬ 명주 해현고개에서 열다섯살 난 큰 아이가 굶어죽어 길에 뜬다. (適過溟州巖峴嶺 大兒十五歲者忽餓死 痛哭收斂於道)

⑭ 우곡현으로 와서 길가에 더집을 짓고 살다. (從率餘四口 到羽曲縣 結茅於路傍而舍)

⑮ 부부는 병들고 굶주려 일어나질 못해 열살 난 딸아이가 구걸하다 개에게 물린다. (夫婦者且病 飢不能興 十歲女兒巡乞 乃爲羸所噬)

⑯ 아파 울고 있는 딸애를 보며 부부는 눈물을 흘린다. (號痛臥於前 父母爲之歎歎 泣下數行)

⑰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헤어질 것을 제의(婦乃○避拭涕 倉卒而語曰……請從此辭)

① 우리가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의복도 깨끗하였음. (予之始遇君也 色美年芳 衣袴稱鮮)

② 맛있는 음식, 따뜻한 옷도 그대와 함께 나누어 지내는 동안 정과 은에는 두터운 연분으로 얽힘. (一味之甘 得與子分之 數尺之煖 得與子共之 出處五十年 情鍾莫逆 恩愛綢繆 可謂厚緣)

③ 근년 이래로 기한과 병고가 더하고 결방살이, 간장 한 병의 구절도 사람들이 용납해 주지 않으므로 그 수치는 무점기가 산더미 같음. (自比年來 衰病日益 深 飢寒日益 迫 榜舍壺漿 人不容乞 干門之恥 重似丘山)

④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그걸 면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부부간의 애정을 즐기겠소? (兒寒兒飢 未遑計補 何暇有愛悅夫婦之心哉)

⑤ 아름다운 얼굴과 웃음은 풀잎 위의 이슬이요 지란같은 약속은 바람에 날리는 벼들개지 같다. (紅顏巧笑 草上之露 約束芝蘭 柳絮飄風)

⑥ 그대와 나는 서로에게 짐이 되고 옛날의 환락은 번거로 오르는 계단이었으니 어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君有我而爲累 我爲君而足礙 細思昔日之歡 適爲憂患所階 君乎余乎 奚至此極)

⑦ 못새가 함께 굶어죽기보다는 외로운 난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소? (與其飛鳥之同餓 焉知隻鷺之有鏡)

⑧ 어려운런 버리고 순경일때는 가까이 하는 게 인정상 차다 못한 일이 헤어지고 만남, 가고 머뭇에는 운명이 있는 것이니 헤어지도록 합시다. (寒弃炎附 情所不堪 然而行止非人 離舍有數 請從此辭)

⑧ 아내의 제의를 듣고 조신은 무척 반가워하며 아이들을 둘씩 나누어 갈라서려 하다. (信聞之大喜 各分二兒將行)

⑨ 아내가 조신을 남쪽으로 가게 하다. (女曰 我向桑梓 君其南矣)

⑩ 서로 잡았던 손을 놓고 헤어지려 할때 꿈을 깨다. (方分手進途而形開)

- ㉑ 등불이 너울거리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殘燈翳吐 夜色將闌)
- ㉒ 이튿날 보니 머리털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及旦鬢髮盡白)
- ㉓ 인간의 고된 생애에 염증은 느껴 탐욕의 마음이 사라진다. (惘惘然殊無人生意 已厭勞生 始飮百年辛苦 貪染之心 洒然冰釋)
- ㉔ 관음의 성스러운 얼굴을 우러르며 참회를 금치 못하다. (於是 慚對聖容 懺漸無已)
- ㉕ 해연고개로 가서 큰 아이 묻은 곳을 파보니 돌비루이 나온다. (諦撥蟹岬所埋 兒塚 乃石甌勒也)
- ㉖ 인근 절에다 불안하고 절관리의 임무를 면하다. (濯洗奉安於隣寺 避京師 免莊任)
- ㉗ 사재금 털어 경토사를 세우고 선업을 닦다. (傾私財 創淨土寺 勤修白業)
- ㉘ 그후 증적을 알 수 없었다. (後災知所終)<sup>(9)</sup>

이상 의미기능에 따라 28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지만 ㉕~㉘ 단락은 불교적 神異와 寺院緣起를 위해 윤색한 성격이 농후하므로<sup>(10)</sup> 본고에서는 제외시키고 24개 단락만을 의미기능단락으로 인정하여 분석하려 한다.

「調信」은 表層的으로는 현실(入夢以前, ①~⑥)—꿈(夢遊世界, ⑦~⑩)—현실(覺夢以後, ㉑~㉔)의 幻夢構造<sup>(11)</sup>로 이루어져 있다. 종래 환몽구조로 작품을 분석하는 논자들에게 있어서 꿈은 인생무상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다시 말해 覺夢 이후의 현실세계에 주안점을 두는데 필요한 장치로 파악하여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더구나 九雲夢 같은 작품은 꿈부분이 현실 부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의 空思想을 강조하는데 필요한 장치로 해석하여 꿈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일률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調信」에는 夢遊世界가 현실세계와 균등하게 책정되어 있고 극적 전환이나 문제유도에 있어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나 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은 편견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表層的인 幻夢構造에서 탈피하여 「調信」을 사건전개에 따른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욕구불만—불만해소—욕구불만—불만해소」가 되풀이되는 反復構造로 보고자 한다.

물론 前後의 「욕구불만—불만해소」가 불만이 생기게 된 동기와 그 해소방법에 있어선 동일한 성격이 아니지만 하나의 일관된 구조로 묶기 위해 반복

(9) 三國遺事 卷第3, 塔婆第四 洛山二大壘 觀音 正趣調信條.

李東嶽譯, 三國遺事(三申堂, 1975).

(10) 정계순, 앞의 글, p. 5.

(11) 丁奎福, 九雲夢研究(고려대 출판부, 1974).

구조라는 용어를 붙였다. 즉, 첫번째 欲求不滿은 애정갈등에서 비롯되어 꿈속에서의 환상적 결합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으며 두번째 욕구불만은 경제적 궁핍에서 발생하여 종교적 사유 내지 각성을 거점으로써 초탈(해소)된다. 이러한 반복구조를 해당 의미기능단락과 함께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f_1(①\sim⑥) \rightarrow S_1(⑦\sim⑨) \rightarrow f_2(⑩\sim⑳) \rightarrow S_2(㉑\sim㉒)$$

f: 욕구불만(frustration)

s: 불만해소(solution)

f<sub>1</sub>: 첫번째 욕구불만

f<sub>2</sub>: 두번째 욕구불만

s<sub>1</sub>: 첫번째 불만해소

s<sub>2</sub>: 두번째 불만해소

→: 사건 진행 방향

위의 반복구조의 특징으로는 夢遊世界가 상반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욕구불만을 꿈속에서 일시적으로 해소(s<sub>1</sub>)하고 난 뒤 다시 꿈속에서 새로운 불만(f<sub>2</sub>)이 싹트겠다는 점은 실컷 환락을 누리다가 覺夢부분에 이르러서 人生無常을 느끼는 식의 幻夢構造와는 다른 훨씬 진보된 구조를 갖춘 것이다. 즉, 공유세계에서 부귀영화를 향유하는 부분이 배제되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한미한 청년과 고귀한 처녀의 애정<sup>(12)</sup>이 잠정적으로나마 해소되는데 그것도 아주 적은 분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불만(f<sub>2</sub>)을 다룬 꿈의 후반부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문제제기를 결한 당대 時代狀況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 Ⅲ. 反復構造에 나타난 두 意味層

#### 1. 愛情葛藤과 일시적 解消

이 작품의 창작된 시기는 金珣公이 849년에 死去하였다는 사실과 洛山寺가 7C 후반 襄湘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점, 地所의 명칭이나 인물의 연대를 근사하게 짜 놓은 점 등의 여러 傍證을 종합해 보면 9~10C 일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작품 서두에 나오는 ‘昔新羅爲京師時’의 구절은 一然이 添記한 부

(12) 林煒澤, 앞의 글, p. 14.

(13) 池浚模, 앞의 글, pp. 123~124.

분이라 할 수 있다.

신라사회에 있어 인간생활을 제약하였던 骨品制度는 후세의 신분제도에 비해서 족벌주의적인 폐쇄성이 훨씬 완강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인 관계가 인간의 앞길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通婚圈도 폐쇄적이었다.<sup>(14)</sup> 調信의 出家前 신분적 계층은 평민으로<sup>(15)</sup> 飢餓를 견디다 못해 佛家에 入門한 것으로 보인다. 新羅下代에 백성들은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당했지만 寺院은 거기서 예외였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아 富를 축적하였다. 더구나, 敎宗이 성행해감에 따라 불교는 귀족층의 향유물로 전락되어 갔으며<sup>(16)</sup> 그에 따른 祈禱의인 성격으로 사원의 재산은 증대되어 그 폐해는 격심하게 되었다. 調信이 절의 장원에 관리인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這間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流浪乞食하다 窮餘之策으로 佛家에 歸依, 衣食住를 해결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절의 관리인이 되어 일단 飢饉를 벗어난 調信 앞에 太守 金昕의 딸이 나타나는 모티프는 사건전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준다. 調信이 寒微한 집안의 자손인데 비해 金氏娘은 太宗武烈王의 9대孫인 金昕의 딸<sup>(17)</sup>로 그들 사이의 신분적 계층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신라사회는 骨品制度가 인간생활의 폭을 좌우했으므로 신분이 다른 계층과의 사랑 내지 통혼은 용납되지 않았다.

9~10C 新羅下代에 이르러서 골품제도는 그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차츰 瓦解되어 가고<sup>(18)</sup> 있었지만 신라인의 骨品수에 뿌리 깊이 잠재된 階級意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러한 완강한 세계 앞에서 調信이 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悲願을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은 大慈大悲한 觀音菩薩 뿐이었다. 그래서, 調信은 洛山寺 관음보살 앞에서 그녀와의 결합을 남몰래 빌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 자체도 공공연히 이루어질 수 없었고 늘 세계와의 대립을 무서워하며 몰래 숨어서 소극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그의 金氏娘에 대한 애정은 관음보살 앞에서의 기원을 통해 肉化되어 갔으며 그건 곧 육구불만의 지나친 축적으로 인한 우울증으로부터 발전했던 것이다. 현실의 부조리하고 모순된 실상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14) 林焚澤, 앞의 글, p. 12.

(15) 池浚模, 위의 글, p. 129.

(16) 邊太燮, 한국사 통론(삼영사, 1986), p. 151.

(17) 池浚模, 앞의 글, p. 129.

(18) 邊太燮, 앞의 책, pp. 144~145.

고 방관자로 남아 있을때 그 비점성에서 오는 자책감은 倍加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金氏娘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기 전까지 調信은 아직 삶 그 자체에서 최소한의 의미와 희망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노력—절대자에게의 祈求<sup>(19)</sup>—을 다하고 있었다.

그의 평소 우울증이나 자책감이 自暴自棄의 奈落으로 떨어진 것은 바로 金氏娘의 결혼 때문이었다. 이는 調信에게 있어선 희망의 대상을 상실한 無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세계의 완강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즉, 모순으로 가득찬 세계는 調信의 순수한 열정을 여지없이 목살해 버림으로써 調信에게 최대의 충격을 주어 자포자기하도록 강요한다. 이제 調信에게는 남몰래 그리워할 대상이 실질적 의미에선 없어진 셈이다. 調信이 기원한 건 궁극적으로는 그녀와의 결합이었고 최소한 그녀가 자기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결혼은 상황변화 이상으로 調信에게 큰 충격이었다.

더우기 그가 믿어오던 관음보살에게 버림받았다는 자격지심은 절대자에게 반항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중생의 고뇌를 자비로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俗諦性<sup>(20)</sup>을 띤 관음보살이 포악한 세계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내버리자 그는 세계에의 중오만큼이나 그의 절대자를 일시적으로나마 불신하게 된다. 물론 이런 충동적 감정에 의한 불신은 울음을 통해 철저히 自省되고 있다. 調信이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운 것은 세계의 횡포에 무조건 억압당해야 하는 자신의 懦弱性에 대한 무기력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원을 성취시켜 주지 않은 절대자를 일시적으로나마 불신했다는 죄책감에서 오는 悔恨의 토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調信의 金氏娘에 대한 사랑은 관음보살(절대자)의 힘에 의해 유도된 꿈을 통해 극적인 결합을 맞이하게 된다. 과학의 세계에서 꿈을 경시하는 것은 예전에 꿈을 너무 중시한 경향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라고 볼 수 있다.<sup>(21)</sup> 빈즈는 꿈이란 육체현상이며 모든 경우에 무익하고 많은 경우에 병적인 과정이라 했으며 마우리는 꿈을 정상인의 균형잡힌 운동과는 정반대인 발작적인 경련이라 하여 하나의 迷信으로 간주, 평가절하시키고 있다. 특히 분트나 근대 철학자들은 꿈을 경멸하는 태도로 꿈의 성찰이 깨어 있을때의 사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열거하면서 聯想의 붕괴, 비판력의 감퇴, 모든 지

(19) 張德順外, 韓國文學史(藝術院, 1984), p. 139.

(20) 耘虛龍夏, 佛敎辭典(東國譯經院, 1961), p. 481.

(21) Freud, Vorlesungen zur einföhrung in die psychoanalyse(眞眞書譯, 정신분석입문(학원출판공사, 1984)), p. 88.

식의 마비, 저하된 활동력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꿈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정밀과학 내지 기계론적 합리주의가 빚어낸 것으로 꿈은 대부분 불분명하고 비논리적이어서 再生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유등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활동에는 체계적이고 분명한 의식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산만하고 불분명한 無意識(잠재의식)의 세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꿈은 예언이나 소망충족을 표현하는 활동<sup>(23)</sup>임을 전제할때 꿈의 분석 및 도입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調信」에서도 꿈은 현실에 대한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꿈에서 우리는 金氏娘의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엿볼 수 있다. 金氏娘은 처음에는 신분적 질서에 동조하여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 비슷한 신분을 가진 청년에게 시집을 간다. 여기서 그녀의 세제질서에 대한 순종은 비판적인 사고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라온 환경과 교육에 의해 맹목적으로 취해진 행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調信을 두고 떠남에 있어 다소의 고민은 있었지만 사태를 번복할 만한 심각한 내적 갈등은 겪지 않았다.

하지만, 金氏娘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신분보다 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調信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調信에게 돌아오는 과감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는 귀족적 생활과 사고가 체질화된 그녀에게 있어선 세계의 기존질서에 대한 획기적인 반항, 즉 사회의 윤리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그대를 본 순간부터 사모하여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애정고백과 함께 <반려가 되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담담하게 털어 놓게 되는 것이다.

정신의학의 이론을 빌면, 꿈은 수면과 覺醒의 중간 상태로 가장 바람직한 수면은 정신활동의 剩餘物인 꿈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sup>(24)</sup> 그러나, 꿈이 없는 수면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없을때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의 수면엔 꿈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를 의도적으로 축적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하면 자포자기의 절망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꿈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일은 정신의학적인 전장에 있어서도 지극히 중요한 일

(22) Freud, 앞의 책, p. 90.

(23) Freud, Die Traumdeutung<金大圭譯, 꿈의 해석(학원출판공사, 1984)>, pp. 136~147.

(24) Freud, 정신분석입문(具寅濬譯, 학원출판공사, 1984), p. 91.

이다. 따라서, 調信은 자신의 욕구불만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관음보살 앞에서 슬피 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 꿈을 통해 그 과정을 연장하게 된다. 물론 꿈은 의도적인 사고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계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調信과 金氏娘의 욕구불만은 꿈을 통해 해소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환상적인 상태에서의 일시적 과정에 불과하고 새로운 불만에 이르게 된다. 즉, 세계는 그들의 결합을 꿈에서조차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궁핍이라는 생계문제를 내세워 방해, 절국은 이별하게까지 만드는 暴惡性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sup>(25)</sup>

## 2. 經濟的 궁핍과 宗教的 超脫

調信의 욕구불만은 꿈속에서 金氏娘을 만나 결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해소되지만 경제적 궁핍의 생활고에 직면 새로운 불만이 싹트게 된다. 「調信」의 夢遊世界에 있어 추은 잠시뿐이고 거의 대부분이 궁핍한 생활을 묘사하는데 할애되고 있다. 이는 新羅末期 기근에 시달리고 流離乞食하던 기구한 민생의 일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그들의 꿈속에서의 결합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계는 신분적인 제약을 擺脫한 이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이별로 유도하고 있다.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겠다는 調信과 金氏娘의 행위는 理想的인 것이었다.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고 이를 성취하려 했던 그들은 되도록이면 추악한 현실에서 벗어나 순수해지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調信은 관음보살 앞에서 슬피 울며 그 의지를 굳건히 했으며 金氏娘은 다른 남자에게서 뛰쳐나와 그에게로 되돌아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극적으로 遭遇한 그들은 40여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 남은 거라곤 말라 비틀어진 다섯명의 자식뿐이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애정과 현실생활은 갈수록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나물죽마저 넉넉하게 먹지 못해 초라한 볼골들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10여년 동안 사방을 돌아다니며 결식한다. 기본적인 衣食住의 해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비참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가 큰 아이는 늙어죽고 딸애가 구걸하다 개에게 끌려 신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때, 그들 부부에게 있어 애정은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었다.

귀족의 딸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란 金氏娘에게 이

(25) 池浚模, 앞의 글, p. 130.

(26) 林榮澤, 앞의 글, p. 15.

런 시련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세계는 金氏娘이 자라온 환경에 비추어 경제적 압박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육체적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 응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新羅下代の 현실세계는 정당한 노력에 상응하는 댓가가 주어지지 않는, 不條理한 사회였으므로 그들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調信은 佛家에 入門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경제적 곤경을 경험하였으므로 金氏娘보다는 그 환경에 익숙하여 그런대로 적응할 수 있었다. 따라서, 金氏娘이 먼저 헤어질 것을 제의한 건 그녀가 상대적으로 調信보다 애정이 부족해서 취해진 행동이 아니라 자라온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행해진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즉, 귀족의 신분으로 이런 생활고를 참고 지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調信과의 50여년간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담담한 어조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황과 감정을 회상하고 있다.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났을 편 얼굴도 아름다웠고 나이도 젊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깨끗하고 고운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두어 자 옷감이 생겨도 당신과 함께 지어 입었습니다.<sup>(27)</sup>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애정을 즐길 여유가 없음을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다.

근년 이래로 노쇠와 병고는 날로 더욱 깊어가고, 흠고 배고픔은 날로 더욱 필박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 절방살이, 간장 한 병의 구걸도 사람들은 용납해 주지 않았고 수많은 집 문전에서 그의 수치는 무집기 산더미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쳐 있어도 그걸 면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국이 이러할때 어느 겨륜에 부부간의 애정을 즐기겠소?<sup>(28)</sup>

애정불만에 대한 해소가 꿈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불만이 꿈을 통해 리얼하게 제시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한 구성이다. 꿈은 소망충족과 아울러 욕구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 잉여물에 의해 새로운 불만이 파생되는 양면성을 공유하고 있는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調信과 金氏娘의 애정결합이 세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환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자 세계는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시대상황과 연합하여 金氏娘

(27) “予之始遇君也 色美年芳 衣袴稱鮮 一味之甘 得與子分之 數尺之屨得與子共之”(三國遺事卷第 3, 塔像第 4, 浴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28) “自比年來 疾病日益深 飢寒日益迫 飭舍益漿 人不容乞 千門之恥 重似丘山 兒寒兒飢 未遑計補 何暇有愛悅夫婦之心哉”(같은책, 同上)

으로 하여금 새로운 불만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신분적 질서를 공고히 다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결방살이나 간장 한 병의 구결도 용납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대리자인 것이다. 그리고, 애정생활의 결과인 아이들도 결국은 경제적 궁핍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세계의 의도에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큰 아이의 餓死와 딸애의 개에게서의 물림은 金氏娘으로 하여금 이별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이것 역시 暴惡한 세계가 설정해 놓은 음모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는 金氏娘으로 하여금 調信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본래의 자기 위치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金氏娘은 <젊은 얼굴 예쁜 웃음>과 <굳고도 향기롭던 佳約>을 각각 <풀잎 위의 이슬>과 <바람에 날리는 버들개지>에 비유하면서 서로가 살기 위해 헤어질 것을 제외한다. 調信과 처음 만났을때 金氏娘은 첫눈에 사모하여 그에게로 되돌아 왔지만 지금은 자기 한몸조차 지탱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임을 인식하고는 서로에게 질이 되느니 차라리 헤어져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애정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궁핍이 그녀를 짓눌러 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취할 수 있는 길은 같이 굶어 죽는 것과 서로 나뉘어져 扶養의 식구를 줄여 어렵지만 삶을 모색해 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調信이 아내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도 이런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음보살을 원망하면서까지 그녀와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눈물로 탄식하여 키어이 꿈에서나마 그 욕구를 일시적으로 이룬 그였지만 추위와 기아로 죽고 여위어가는 아이들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고 더러우 그리고 헤어지고 만남은 운명>이라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 아이들을 데리고 남으로 떠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궁핍으로 하여 헤어짐으로써 꿈은 끝나게 된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調信은 꿈속에서 그 괴롭던 현실, 즉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는 길은 善業을 닦으면서 佛道에 정진하는 수밖에 없음을 觀音菩薩의 성스러운 얼굴로부터 전해 받게 된다. 신분적 제약으로 인한 애정갈등, 경제적 궁핍 등의 諸문제는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만 초탈(해소)할 수 있음을 覺夢 이후의 단락은 보이고 있다. 즉, 작자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方策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는 종교적 초탈이라는 현실도피적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 애정불만이 金氏娘의 적극적 행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는데 비해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불만은 金氏娘의 적극적인 결단에 의

해서 방법만 제시되었을 뿐 그 현실적 해소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이별하여 각기 식구수를 줄임으로써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었다는 부분은 배제되고 곧바로 종교적 초탈에 의한 추상적 해결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이는 애정갈등보다 경제적 모순이 그 당시 더 심각하고 난해한 사회문제였다는 것을 傍證하는 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궁핍을 불교의 空思想으로 해소시키려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覺夢 이후의 현실에 나타난 불교사상은 入夢 이전의 애정불만까지 해소하는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 즉, 불교의 空思想은 夢遊世界의 경제적 궁핍뿐만 아니다. 애정갈등까지 하나로 묶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現世의 諸現象은 모두 헛된 것이라 전제하고 삶 그 자체를 일시에 지나가는 꿈에 비유함으로써<sup>(29)</sup> 현실적 해결이나 代案보다 이를 극복한 宗教的 超脫을 강조하고 있다.

覺夢 이후의 단락이 一然에 의해 다소 潤色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調信」의 반부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그 당시 상황에선 종교적 초탈 이상의 해결책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어지러운 시대에 있어 종교적 수행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인간은 한계상황에 부딪침으로써 超越的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 그리하여 한계에 부딪쳐서 막혀버린 시선은 비로소 구원을 향해 날개를 펴게 되는 것이다.<sup>(30)</sup>

#### IV. 갈래설정과 文學史的 位相

갈래의 설정은 문학작품을 類型別로 묶어 그 속에 내재된 공동점을 추출하여 다른 유형과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과 독자성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큰 갈래(類概念, Gattung)의 분류에 있어선 별 異見이 없지만 그것의 下位인 작은 갈래(種概念, Art)<sup>(31)</sup>에 있어선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예외는 아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설화와 소설의 구분이다. 물론 양자가 敍惠라는 큰 갈래에는 일치되고 있으나 이들의 구분은 그리 명확하지가 못하다. 이는 古小說의 많은 작품이 그 소재를 설화에서 빌어 왔으며 口碑性을 특징으로 하는 설화가 文獻에 정착되어 전하는 경

(29) 정계순, 앞의 글, 0.8.

(30) 金烈圭, 문화의 자장(평민사, 1978), p. 47.

(31) 金文基, 국문학의 갈래(조동일·황쾌강외,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2), p. 19.

우가 많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로 口傳되며 규칙적 律格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口演되는 과정에선 話者が 聽者를 대면해서 청자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행해진다.<sup>(32)</sup> 이러한 설화의 전반적인 특징에다 記錄文學의 복합성을 가미하면 소설이 된다. 특히 우리의 고소설은 설화의 특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실상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정착된 문헌설화는 기록문학적 성격도 가지게 되므로 이를 古小說과 구분한다는 건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나라에서 ‘小說’이란 명칭이 나타난 것은 李奎報의 白雲小說<sup>(33)</sup>과 恭愍王 때의 高僧 尙閑의 法語 篇名인 興聖寺入院小說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34)</sup> 그러나, 소설의 개념에 대해 언급해 놓은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여러 문헌에 나타난 소설의 명칭과 그 범위를 통해 개념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魚叔權의 稗官雜記와 李暉光의 芝峯類說을 통해 보면, 淫談·詩話·日記·地理書·閑談·諧謔·雜記·隨筆 등이 소설의 범주에 들 수가 있다. 여러 문헌을 통해 유추한 결과 古小說은 novel 이라기보다는 roman 에 가까운 속된 말이나 글로 된 심심풀이 이야기이며 사실을 왜곡한 君子修道에 반하는 음란한 이야기<sup>(34)</sup>로 요약된다.

그러나, 위의 개념은 아무리 시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설화에 가까운 것이며 文藝美學의 측면에서의 소설의 개념으로서 적당하지가 않다. 가장 완전한 소설의 개념은 고소설과 현대소설의 개념 중에서 그 공통분모를 추출, 이를 종합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고소설의 개념을 우선으로 하되 현대소설의 개념과 겹치는 부분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위의 방법을 적용하면, 소설이란 간단히 口傳되어 오다가 후일에 문자로 정착된 단순한 괴이한 이야기가 아니고, 비록 괴이하다 하더라도 작가가 창작의사로 직접 집필하여 사건을 통한 하나의 가치관념을 美的으로 표현한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즉, 소설은 설화와는 달리 사건의 나열보다 인물의 심리적 활동묘사, 文飾의 가미, 보다 풍부한 사회현실의 反映<sup>(36)</sup>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調信」에서는 신분적 제약과 경제적 궁핍이라는 당대 현실이 극명하게 반

(32) 張德順外, 口碑文學叢說(一潮閣, 1971), p. 15.

(33) 洪萬宗, 詩話叢林.

(34) 金光淳, 앞의 글, pp. 58~59 참조.

(35) 池浚模, 앞의 글, p. 117.

(36) 林篔簹, 앞의 책, p. 22.

영되어 있으며 「육구불만—불만해소—육구불만—불만해소」로 이루어진 반복구조는 갈등과 해결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金氏娘의 애정고백과 이별에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부분에선 치밀한 심리묘사와 비유법이 縱橫으로 구사되어 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열식 서술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도 그 속도를 조절하여 金氏娘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꿈속에서의 극적결합을 순간적으로 처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부의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함으로써 流離乞食하며 떠돌아 다니던 신라시대 飢民의 행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반복구조에는 상호 우위에 서려는 世界와 自我의 대결<sup>(37)</sup>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즉, 육구불만은 자아에 대한 세계의 횡포를 의미하고, 불만해소는 세계의 횡포에 대한 자아의 반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교적 초탈로 작품이 結構되어 있지만 世界와 自我의 대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해결의 과제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調信」은 그 치밀한 반복구조에 의한 갈등과 해결의 적절한 조절기능, 극명한 현실방영, 인물의 리얼한 심리묘사, 사건전개의 완급조정, 뚜렷한 작가의식, 世界와 自我의 상호 우위에 입각한 대결 등으로 보아 傳奇小說로서의 구비조건은 거의 갖추고 있다.

그러나, 金鰲新話 이전의 작품은 치밀한 구조분석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선입견에 빠져 설화로 몰아 붙이는 경향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唐의 傳奇小說은 6,7C에 창작된 이래 8,9C에는 그 全盛期를 이루었다. 신라말에는 공식적인 사신의 왕래는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승려와 유학생, 상인 등의 왕래가 빈번했던 점<sup>(38)</sup>으로 보아 唐에서 성행하던 傳奇小說도 분명 유입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羅末麗初에는 한문학의 수준이나 城市의 번영 그리고 唐과의 문물교류 등의 시대상황이 충분히 소설을 양산할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sup>(3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설사를 15C로 끌어내리는 것은 문화적 후퇴를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麗末의 假傳을 우리 소설의 효시로 잡는 論者도 있지만 기실 「調信」은 갈등과 해결이 교체되어 나타나는 반복구조만으로 식물이나 동물을 擬人하여 평면적으로 서술한 假傳보다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의 문화를 수입한 일본에서도 10C에 「落窪物語」 같은 소설이 등장했는데, 영향을 끼친 우리가 그들보

(37)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7), p.128.

(38) 唐書, 唐太宗 貞觀 5年(631) 참조.

(39) 林燦澤, 앞의 글, pp.23~24.

다도 훨씬 뒤에야 소설을 생산했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sup>(40)</sup> 이러한 論旨는 소비니즘적 발상에서 나온 편견이 아니라 균형잡힌 視角으로 문학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調信」은 작자의 未詳으로 인하여 설화로 갈래를 설정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소설의 대부분은 작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일반적 사실과 「調信」은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작품이므로 굳이 작자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특수상황을 인정한다면 작자미상이 설화에 가깝다는 주장에 반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調信」은 신분적 제약과 경제적 궁핍을 切感한 어느 沙彌僧에 의해 쓰여진 자신의 체험담이라 할 수 있다. 작품 末尾의 佛敎的 超脫은 이 작품이 9-10C에 어느 사미승에 의해 창작되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해 준다.

요컨대, 「調信」은 羅末麗初에 창작된 傳奇小說로서 우리의 소설사를 앞으로 소급시켜 그 범주를 확장시켰다는 데에 그 意義가 새롭다.

## V. 結 論

本稿는 「調信」의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소설적 요소를 抽出함으로써 우리의 小說史를 羅末麗初로 소급시켜 보려는 데 그 목적을 두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상에서 얻어진 성과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調信」을 의미기능에 따라 28개의 단락으로 나눈 후, 작품 말미의 ㉟~㉟은 一然에 의해 윤색된 것으로 파악하여 제외시키고 24개의 단락으로 분류하여 그 구조를 고찰하였다.

둘째, 24개의 意味機能段落를 통해 幻夢構造보다 더 深層的인 구조로서 「육구불단—불만해소—육구불단—불만해소」로 이루어진 반복구조를 찾아 내었다.

셋째, 신분적 제약으로 인한 애정불만이 金氏娘의 적극적 행동에 의해 꿈속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자세하게 살폈다.

넷째, 꿈속에서 애정불만의 해소 뒤에 경제적 궁핍이라는 새로운 불만이 생기게 된 動因과 그것이 주상적 대안인 宗敎的 超脫로 결구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反復構造에 나타난 현실반영, 뚜렷한 작가의식, 사실적 심리묘사, 自我와 世界의 상호 우위에 입각한 대결 등을 들어 「調信」을 9~

(40) 金光淳, 앞의 글, p. 63.

10C 나말여초에 어느 沙彌僧에 의해 창작된 傳奇小說로 그 갈래를 설정하고 우리의 小說史를 앞으로 소급시켜 그 범주를 확정시켰다는 데에 그것의 位相을 두었다.

### 參 考 文 獻

- 金光淳, “韓國古小說史序說”(語文論叢 19,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 金文基, “극문학의 갈래”(황재강·조동일外,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7).
- 김수업, “조선설화와 중국전기의 비교에서 본 구운몽”(개척자 11, 경상대학교, 1974).
- 金烈圭, 문화의 자장(평민사, 1978).
- 邊太燮, 한국사총론(삼영사, 1986).
- 耘虛龍夏, 불교사전(동국역경원, 1961).
- 이동환譯, 삼국유사(삼중당문고 15, 16, 三中堂, 1975).
- 이상섭, 문학의 이해(서문문고 45, 서문당, 1985).
- , 문학비평용어사전(민음사, 1976).
- 林榮澤, “羅末麗初의 傳奇文學”(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84).
- 張德順, 한국문학사(동화출판사, 1983).
- 장덕순外, 한국문학사(예술원, 1984).
- 정계순, “조선설화연구”(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丁奎福, 九雲夢研究(고려대출판부, 1974).
- 정우한, 조선설화와 구운몽비교(동국대신문 610호, 1975).
- 조동일, 韓國小說의 理論(지식산업사, 1977).
- 조동일, 장덕순外, 口碑文學概說(일조각, 1971).
- 趙潤濟, 국문학사개설(을유문화사, 1982).
- 池浚模, “傳奇小說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조선전을 해부함(어문학 32집, 한국어문학회, 1975).
- 車溶柱, “諷信說話研究”(古小說論叢, 계명대출판부, 1985).
- 崔南善編, 三國遺事(서문문화사, 1983).
- Freud, Vorlesungen zur einföhrung in die Psychoanalyse(具寅謙譯, 정신분석학 논문, 학원출판공사, 1984).
- Freud, Die Traumdeutung(金大圭譯, 학원출판공사, 1984).